

해방과 독립이 주는 교훈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기념일을 정해놓고 잊혀가는 역사를 기억하며 각성하고자 다짐한다. 그러나 정작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는 의기(義氣)는 어찌란 말인가.

1875년 강화도 사건은 우리 민족의 숨통을 조이는 통한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그 후 계속해서 감시하에 있던 조선은 1910년 8월 29일 강제합방조약에 강제 서명하게 된다. 그 후 통한의 36년! 국민의 기본권박탈 강제노동, 강제징용, 역사, 언어, 문자까지도 탄압에 굴복하고 이름과 성까지도 일본식으로 바뀌야 하는 한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통탄이 매일 계속되고 있었다.

세계 열강들과의 전쟁준비로 미쳐 있는 일본은 갖은 약탈과 탄압으로 식민지화했고 아예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아 버렸던 것이다.

그래도 우리의 선열들은 온갖 탄압 속에서도 맹렬히 지하 운동 등의 방법으로 민족성을 잃지 않고 싸워온 결과 해외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광복군을 조직하는 등 항일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바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통해 미, 영, 중의 원수가 모여 우리의 독립을 밝혔던 것이다.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재확인됐고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위력에 놀란 일본은 꺾소리도 못한 채 8월 15일 미국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에도 제주도 4.3사건 같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질곡의 역사적 전환점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남로당 조직이 제주도에 결집하면서 발발된 4.3 사건은 28만 제주인구 중 15,000여 명이 전쟁이 아닌 지역에서 이념적 대립으로 무참히 희생된 해방 직후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 후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 위원단의 감시하에 남한에서 역사적이고 민주주의의 희망인 총선거가 단행되어 국회가 소집되고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탄생되었다.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자유민주국가로 발족한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쾌거를 이룬 것이다.

8.15의 의미는 해방과 정부 수립이라는 양면적 의미가 있기에 더욱더 큰 뜻을 품었다 하겠다. 현재를 사는 우리의 정신 속에 지워서는 안 될 구국 선열들이 이루어놓은 장엄한 역사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데올로기 문제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령들에게 머리 숙여야 하는 8.15가 되어야겠다.

특별히 논거하자면 역사적 대원수인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를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처단한 안중근 장군이다. 안중근의사는 재판과정에서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결행한 것이지 절대로 테러나 살인 사건이 아님을 밝혔다. 현재에 와서 일본학자들도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자였고 대한민국의 참모 총장 겸 독립특파대장이었기에 당연한 전쟁사였음을 일본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다. 이토록 갖은 만행과 학정 속에서 견디며 이겨낸 선열들의 희생을 공고히 하고 그들의 침략적 만행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서산지역 벇가릿대(禾竿) 신앙 연구

이 관 호

(국립민속박물관 과장)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서산지역 벇가릿대 신앙의 전승양상
 - 1. 벇가릿대 신앙이란?
 - 2. 건립위치
 - 3. 벇가릿대의 형태
 - 4. 벇가릿대 제의(祭儀) 과정
- IV. 맺음말 - 서산지역 벇가릿대 신앙의 특징

4. 벇가릿대 제의(祭儀) 과정

이렇게 세워놓은 벇가릿대는 음력 이월 초하룻날 거둔다. 이월 초하루는 머슴날이라 하여 농사가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바탕 놀 수 있는 농부들의 명절이다. 따라서 이 날 부잣집에서는 머슴이나 소작인에게 많은 술과 음식을 장만해 주고 맘껏 놀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마을에서는 정월 보름 경에 세워 놓았던 벇가릿대를 눕히고 장대에 매달아 놓았던 오곡으로 풍흉을 점치는 벇가리제(祭)¹⁶⁾를 지낸다. 벇가리제 역시 마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 운산 5리의 사례를 통해 벇가리제의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월 초하루 날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은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마을 회관으로 모여 고사에 쓸

16) 태안군 이원면 관리의 경우 '화간제(禾竿祭)'라고 하였는데, 이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태안군 지부장인 문제원씨의 조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제물을 준비한다. 이어 11시경이 되면 사람들은 농기(農旗)와 삼재축출기(三災逐出旗), 향약기(鄉約旗)를 들고 풍물패를 앞세운 다음, 제물을 지고 마을 공동 우물인 '참샘'으로 가서 '참샘굿 고사'를 지낸다. 참샘굿 고사가 끝나면 곧바로 벧가릿대 앞에 제상을 차려놓고 제를 올린다. 영좌(領座)가 비손문을 외우고 참가 주민 일동이 재배를 한다. 제의가 끝나면 집사가 '고수례'를 한 다음 떡과 술을 나누어 먹고 한마당 신명나게 농사놀이(두레놀이)를 한다. 그런 다음 벧가릿대를 눕히고 오곡 주머니를 풀어 씨앗이 튼 것을 확인하여 풍흉을 점친다. 이때 서북쪽의 싹이 잘 텴으면 육답(陸沓) 농사(육지 쪽에 있는 농토)가 잘 되고 동남쪽이 잘 텴으면 갯가의 간척지 농사가 잘 될 징조라고 한다. 이어 눕힌 벧가릿대 줄과 짚은 작두로 쓸어서 벧섬에 담아 집안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가을에 거름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풍년이 든다고 하여 서로 벧짚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와 같이 벧가릿대를 세울 때에는 대개 간단하게 치러지나 벧가릿대를 내릴 때에는 성황리에 치러진다. 당진 구룡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구룡리 역시 음력으로 2월 1일 머슴날에 벧가릿대를 내리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즉 이월 초하루 아침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치면서 제물을 준비하여 벧가릿대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삼색실과, 술(막걸리) 등을 준비한다. 이어 준비한 제물을 벧가릿대 앞에 진설한다. 제의는 마을의 연장자가 주관하는데 그 절차는 간단하다. 술은 3잔을 올리며, 잔을 올릴 때마다 재배를 하고 이어 독축(讀祝)¹⁷⁾을 한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축원과 함께 소지를 올리는데 축원과 소지는 이 마을에 사는 이봉춘 보살(80세)이 담당한다. 이때 이보살은 삼지창에 돼지머리를 꽂아 세우는 의례를 행한다.

이러한 제의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벧가릿대를 쓰러뜨린다. 우선 3개의 동아줄을 푼 다음 벧가릿대를 서서히 넘어뜨린다. 이어 오곡이 담긴 종태미를 내려 상위에 놓고 오곡을 열어 본다. 이때 오곡에 싹이 트면 그 해에 풍년이 들고, 싹이 트지 않고 마른 채 그대로 있으면 흉년이 든다고 점친다. 점을 친 오곡은 다섯 사람이 각각 나누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논으로 가서 뿌린다. 이때에도 “올 일년 풍년들게 해주 십시오”라고 축원을 한다. 한편 옛날의 경우에는 눕힌 벧가릿대 줄과 짚을 작두로 쓸어서 벧섬에 담아 집안의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가을에 거름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요즘에는 곧바로 논에서 불을 놓아 태워 버린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개 벧가릿대를 내릴 때에는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독축(讀祝)과 함께 축원으로써 풍년을 기원한다. 이때 대개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제의가 주관되고 있으나 구룡리의

17) 이 축문은 1991년 당시 농촌지도소 직원이면서 구룡리 벧가릿대 재현에 앞장섰던 황규연(51세, 작고)씨가 다른 곳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 干支 二月 干支 朔 初 一日 干支 姓名 敢昭告于

里社之神 維此 孟春若時 昭事 九龍里 康吉 五穀豐盛 冀賴身體

菲禮將誠 惟伸 顧歆 永奠厥居 尙 饗

경우처럼 무당이 일부 제의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벚가릿대는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로서 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제의에 앞서 물의 풍부함을 기원¹⁸⁾하는 의례를 행하기도 한다. 즉 제의에 앞서 풍물을 치면서 맑은 물을 그릇에 담아놓고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라고 고사소리를 한다. 그럼으로써 일년 내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원한다.

한편 벚가릿대와 관련하여 많은 숨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아침 일찍 집안 어린애로 하여금 벚가릿대 주위를 돌면서 풍년을 들게 해 달라는 말을 해가 뜰 때까지 노래로 부르게 한다. 벚가릿대를 거둘 때에는 짚단 안에 넣었던 곡식이나 나뭇가지에 매달았던 곡식을 찢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다. 떡의 크기는 손바닥만하기도 하고 새알심만 하기도 하며, 떡 안에 콩이나 팥으로 소를 만들어 넣기도 한다. 이런 떡은 집안 식구끼리 먹지만 머슴이나 하인에게도 나누어준다. 그러나 이웃 집에는 나누어주지 않는다.

벚가릿대를 헐기에 앞서 섬이나 가마니 같은 것을 가져다 곡물을 넣는 시늉을 하면서 큰 소리로 「벼가 몇 만 석이요」「조가 몇 천 석이요」「콩이 몇 백 석이요」「팥이 몇 십 석이요」하고 소리쳐 마치 많은 수확을 거둔 것처럼 멋대로 외친다. 그러면 그 해에 풍년이 들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한다.

한편 벚가릿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기(禁忌)가 요구되기도 한다. 벚가릿대를 세우는 날에는 키가 작은 사람은 남의 집 방문을 삼가야 한다. 벚가리를 만든 14일에 찾아오는 손님의 키가 작고 크고에 따라서 그 해 농작물의 성장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키가 큰 손님이 오면 오곡이 모두 크게 잘 자라지만 키가 작은 손님이 오면 곡물도 왜소(矮小)해져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또 이 날 여인이 아침 일찍 찾아오면 재수가 없다고 전하므로 여인들의 외출은 가급적 피한다.

5. 맺음말-서산지역 벚가릿대 신앙의 특징

농사는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기성을 지닌다. 이러한 주기성을 바탕으로 농경세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농사가 생산과정에 따라 주기성을 띠고 있음에 따라 그에 따른 의례도 내용을 달리한다. 연초에는 대동으로 풍년을 기원하고, 성장기에는 농신(農神)에게 성장의 축진을 기원하고, 또 수확기에는 조상과 여러 신들에게 감사의 예를 올린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벚가릿대 행사는 연초에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의례(祈豐儀禮)이다. 즉 벚가릿대 세울 때의 시기와 장소, 벚가릿대 눕힐 때의

18)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의 경우

시기와 의례 등은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결론에 대신하여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벚가릿대는 짚이나 형짚 등으로 벼·보리·조·기장·수수·콩·팥 등 온갖 곡식을 써서 긴 장대에 매단 다음, 우물이나 마당 또는 외양간 옆에 높다랗게 세워 놓고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대개 음력으로 정월 열 나흘날 또는 정월 보름날 벚가릿대를 세워 이월 초하룻날 벚가리 고사를 지낸 다음 벚가릿대를 눕힌다. 명칭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벚가릿대·벚가리·노적가리(충청도, 전라도), 난가릿대·유지기·농사장원기(전라도) 등으로 불리며, 한자어로는 화간(禾竿)·화적(禾積)·도간(稻竿)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재는 대개 ‘벚가릿대’ 나 ‘난가릿대’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세우는 위치에 있어서도 각 지역이나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벚가릿대를 세우는 주된 목적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식수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데 있는 만큼 대개 벚가릿대는 우물가나 들판, 바깥마당과 안마당, 외양간 옆 등에 세운다. 벚가릿대를 세우는 주체에 있어서도 전라도 진도지역의 경우 대개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벚가릿대를 세우는 반면 내포지역인 충청도 서산·당진 일대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공동우물이나 들판 또는 마을 회관 등지에 세운다. 한편 서산지역의 경우 벚가릿대를 공공장소에 세우는 것 이외에 개인 농가 마당에도 벚가릿대를 세운다. 그러나 진도지역과 다른 점은 벚가릿대를 세우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벚가릿대의 생김새도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다. 대개 살아있는 소나무나 대나무를 장대로 하여 맨 꼭대기에 오곡(五穀)을 형짚에 써서 매달고 짚으로 주저리를 틀듯이 장대를 감싼 다음, 벼이삭이 늘어진 모양으로 동아줄 3개를 거꾸로 틀어 줄을 매어 세운다.

이렇게 세워놓은 벚가릿대는 음력 이월 초하룻날 거둔다. 이월 초하루는 머슴날이라 하여 농사가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바탕 놀 수 있는 농부들의 명절이다. 따라서 이 날 부잣집에서는 머슴이나 소작인에게 많은 술과 음식을 장만해 주고 맘껏 놀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마을에서는 정월 보름경에 세워 놓았던 벚가릿대를 눕히고 장대에 매달아 놓았던 오곡으로 풍흉을 점치는 벚가리제(祭)를 지낸다.

한편 벚가릿대를 세우는 시기인 음력 정월 보름과 샘은 시·공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보름의 상징적 의미는 ‘보름-여성-풍요’라는 의미로 연결되고, 샘의 상징적 의미는 ‘샘-용수(用水)’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벚가릿대를 눕히는 시기인 이월 초하루는 세시풍속 상으로 볼 때 ‘영등날’, ‘머슴날’로도 불린다. 이 시점은 해동이 되고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사의 축원 내용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벚가릿대 눕히는 시점과 관련의례는 한 해 농사의 시작의 길목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의례(祈豐儀禮)로 우리 농부들의 염원이 듬뿍 담겨 있다.

정순왕후 貞純王后



정순왕후생가

음암면 유계리 464번지에는 정순왕후 생가라고 하여 충청남도 기념물 제68호로 1988년 8월 30일 지정된 한옥이 있다. 여기서 태어난 정순왕후는 어린 나이에 영조의 계비로 간택되어 격동기를 살다간 인물이다. 정순왕후는 본관이 경주김씨이고,

1745년(영조 21년) 음암면 유계리에서 태어났다. 본래 이곳은 고려말 김자수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주김씨는 이곳 한다리 마을에 자리잡게 되었다. 효종때 문신인 학주 김홍욱이 노부인 김적을 모시고 있음을 알고 효종이 하사한 가옥이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 벼슬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 일대에 유명한 양반가문이 되었다. 이곳에서 학주 김홍욱의 4대손인 김한구와 원풍부부인 원씨의 맏딸이 정순왕후이다.

1759년 15살의 나이에 왕비에 책봉되었는데, 이때 간택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 간택을 받을 대상자를 선발한 후 질문을 통해 선정하였는데, 그때 했던 질문들은 다음과 같았다.

방석을 비켜않은 이유-방석에 아버지의 함자가 쓰여있기 때문,

가장 맛있는 음식-소금,
가장 아름다운 꽃-사람의 옷을 만드는 면화,
가장 깊은 것-사람의 마음,
건물의 기와곳은 몇 개인가?-비오는날 낙수가 떨어져 패인 구멍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림.

가장 넘기 힘든 고개-보릿고개라는 현명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18살의 나이에 사도세자를 폐하고 궐에 가뒀 죽는 일이 생기고, 32세의 나이에는 정조가 즉위하게 된다. 영조와 정조시대는 조선왕조가 중흥을 걷던 시기임과 동시에 당파간의 싸움이 치열했던 시대였다. 그 중심에 정순왕후가 있었다. 그리하여 후세의 역사가들은 정순왕후에 대한 평가를 내림에 있어 이로 인해 폄하되기도 하지만, 서산이 배출한 유일한 왕비로서의 평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800년에는 정조가 승하하자 순조가 왕위에 오르고 수렴청정을 시작한다. 순조시대부터 시작된 삼정의 문란과 족벌정치로 인해 민중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세에 구원을 준다는 천주교가 학문을 넘어 종교로서 믿게 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천주교의 급격한 전파는 시대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수렴청정을 한 정순왕후는 천주학을 엄금하고 오가작통법으로 감시하며, 신유사옥을 일으킨다. 1803년에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1805년 61세의 나이로 승하한다. 정식 칭호는 예순성철장희혜휘익렬명선수경광현옹인소숙정헌정순왕후김씨(睿順聖哲莊僖惠徽翼烈明宣綏敬光獻隆仁昭肅靖憲貞純王后金氏), 시호는 정순, 휘호는 소숙정헌, 전호는 효안, 능호는 원릉이다. 원릉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내에 위치하며 영조와 정순왕후의 친영(별궁으로가 왕비 맞이하기) 모습을 그린 가례도감의궤 반차도가 서산문화원 3층 향토사료관에 전시되어 있다.

당신이 잊고있던 영웅의 기억

드라마 <광개토태왕>의 실제와 허구

광개토태왕(이름 담덕, 재위 391~412년)을 소재로 한 KBS 드라마 <광개토태왕>이 지난 6월 4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2000년 이후의 사극들이 다 그렇듯, 이 드라마 속에도 실제보다는 허구가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 극중 스토리를 담덕의 실제 삶으로 오해하지 말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를 가려내는 식별력이 필요하다. 7월말까지의 방영분 중에서 실제와 허구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를 살펴보자.

1. 태왕인가 대왕인가, 아니면 그냥 왕인가? : <광개토태왕>은 제목에서는 '태왕'이란 표현을 쓰면서도 극중에서는 '대왕'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임금의 칭호가 '왕'으로 통일되어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삼국사기』가 가장 권위 있는 사료는 아니다. 『삼국사기』는 1145년에 편찬되었다. 이것은 고구려가 멸망한 때로부터 477년 뒤의 일이다. 『삼국사기』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고구려 시대에 생산된 사료들이다. 고구려 시대에 생산된 사료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행히도 그 점을 알려주는 사료는 비교적 충분하다.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 담덕의 비문(광개토대왕릉비문·광개토대왕릉비문·광개토왕릉비문)과 '모두루 묘지', 경북 경주시 노서리 고분군에 있는 신라 때 무덤인 호우총에서 나온 고구려 그릇(415년 제작),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원고구려비(423년경 제작) 등에서는 '태왕'이란



광개토대왕릉비 (중국 길림성 집안현 소재)

표현이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죽은 임금뿐만 아니라 재위 중인 임금을 두고도 ‘태왕’을 사용했다. 고구려 임금의 칭호는 왕이 아니라 태왕이었던 것이다. 물론 모든 고구려 군주의 칭호가 태왕이었던 것은 아니다. 광개토태왕릉비문에서 초대 추모왕(주몽왕), 제2대 유리왕(유리왕), 제3대 대주류왕(대무신왕)의 경우에는 태왕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칭호가 제3대 대주류왕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태왕이라 부르든 대왕이라 부르든, 그냥 왕이라 부르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고구려의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대주류왕은 백성 1만여 명을 이끌고 투항해온 동부여 대소왕의 친족을 왕으로 책봉했다. 이는 고구려 임금이 자기 밑에 또 다른 왕을 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왕 밑에 왕이 있는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대주류왕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 태왕과 왕을 구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태왕이란 표현은 여러 단계의 왕으로 이루어진 중층적인 정치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태왕인지 대왕인지 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담덕은 장남인가 차남인가? : 〈광개토태왕〉 속의 담덕은 매우 유능한 둘째아들이다. 이것이 그에게는 시련의 씨앗이다. 담덕을 견제하는 세력은 ‘태왕이 될 수 없는 제 2왕자가 너무 유능해지면 고구려의 미래가 불안정해진다’는 논리 하에, 사사건건 담덕을 음해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적국(중국 후연)이 담덕을 암살하는 것을 방조하기까지 한다. 암살을 겨우 모면한 담덕이 엉뚱하게도 노예시장에 팔렸으니 둘째아들 담덕의 고난은 참으로 눈물겹기만 하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설정은 과연 사실일까?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서는 “(담덕은) 고국양왕 3년에 태자로 세워졌고, 8년(원문에는 ‘9년’으로 잘못 기재)에 왕이 죽으니 태자가 왕위에 올랐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담덕은 서기 386년에 태자가 되었다. 374년에 출생했으므로, 만 12세에 태자가 된 셈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그가 고국양태왕의 집권 초기에 후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담덕의 백부인 소수림태왕은 고국원태왕 25년에, 할아버지인 고국원태왕은 미천태왕 15년에 태자가 된 점을 고려하면, 담덕은 고국양태왕 3년에 태자가 되었으니 꽤 일찌감치 후계자가 된 셈이다. 역대 태자들과 비교할 때,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편에 속한다. 담덕이 만 12세에, 그것도 고국양태왕의 집권 초기에 후계자가 된 것은 그를 중심으로 하는 후계구도의 형성을 가로막는 라이벌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그에게 형이 있었다면 것처럼 빠른 나이에 그것도 아버지의 집권 초기에 후계자가 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보면 담덕이 드라마와는 달리 장남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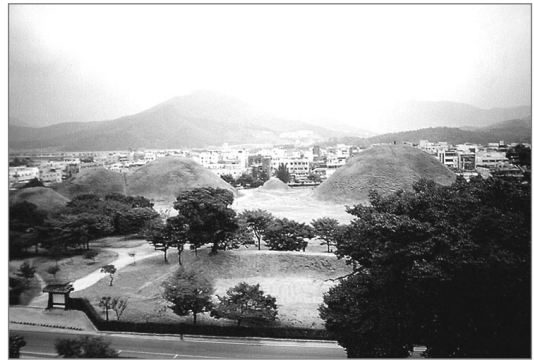
3. 담덕은 어느 무대에서 댔나? : 〈광개토태왕〉에서는 담덕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스타가 되었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했다. 드라마 속의 담덕은 중국 왕조인 후연과의 전쟁에서 능력과 가능성을 입증했다. 군령을 어기면서까지 몸을 불사른 그의 용맹함이 아니었다면 드라마 속의 고구려는 고전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담덕이 즉위하기 이전의 국제관계를 살펴보면, 담덕의 명성이 알려진 것은 중국이 아닌 백제와의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고국양태왕 시대(384~391년)의 대외관계를 2개의 시기로 구분해 보자.

제1기(384~385년)에 고구려와 전쟁을 벌인 나라는 후연이었다. 고구려는 1승 1패를 거두었다. 이때 담덕은 11~12세인 데다가 일반 왕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울 기회가 없었다. 〈광개토태왕〉에서는 담덕이 후연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고 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제2기(386~391년)에 고구려와 전쟁을 벌인 나라는 백제였다. 제2기가 시작된 고국양태왕 3년 1월(386.2.15~3.16)에 담덕은 태자로 책봉되었다. 이 기간에 고구려는 백제와의 전쟁에서 『삼국사기』에 따르면 1승 2패,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따르면 3승 2패를 기록했다. 고국양태왕이 사망하고 광개토태왕이 즉위한 391년에 고구려가 거둔 2승을, 『삼국사기』에서는 광개토태왕 시대의 업적으로 처리한 데 비해 『조선상고사』에서는 고국양태왕 시대의 업적으로 처리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광개토태왕릉비문에 그 2승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음미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따르면, 이미 고국양태왕 시절부터 태자 담덕의 지휘능력이 백제에까지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보면, 그 2승을 실제로 지휘한 인물은 담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2승이 고국양태왕이 죽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태왕릉비의 건립자들은 그 2승을 담덕의 업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2승은 고국양태왕의 재위 기간 중에 담덕의 주도 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은 고국양태왕과 광개토태왕이 교체된 해에 그 2승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왕 때에 발생한 사건인지 헷갈렸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담덕이 태자로 있을 때에 고구려가 상대한 적은 백제였고 그 백제와의 전쟁에서 담덕의 능력과 가능성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이다. 즉위 이전의 담덕은 드라마에서처럼 중국과의 전쟁에서 명성을 얻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백제와의 전쟁에서 명성을 날렸던 것이다.



노서리 고분군 (출처 : 문화재 지리정보 서비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경관광장에 있는 광개토대왕 동상



글쓴이 소개

김 종 성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동양사 전공 박사수료
-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한국사 인물통찰' 강의 중
- 문화재청 헤리티지 채널 'TV 속 역사읽기' 연재 중
-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사극으로 역사읽기' 연재 중

... K팝 열풍 디지털 실크로드를 열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이 열렸다. 물리적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공간에 생겨난 길. 디지털 실크로드다. 고대에 중국이 서역과 비단을 거래하면서 생겨난 실크로드가 있었다면 이제 한류라는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디지털 실크로드가 생겨났다. 고대 실크로드가 비단 무역에서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로까지 동서의 교류가 이어졌다면, 디지털 실크로드 역시 마찬가지다. 한류 콘텐츠가 먼저 디지털을 따라 들어간 전 세계의 지역 곳곳에는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관심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리안 인베이전'은 그 디지털 실크로드가 표면으로 올라온 사건이다. 작년 일본의 시사주간지 '아에라'가 연일 일본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라와 소녀

시대 열풍을 다루며 쓴 이 표현은 최근 파리에서 벌어진 SM타운의 공연 열기로 이어졌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피가로'나 '르몽드'는 '유럽을 덮친 한류'라고 표현하며 이 수면 위로 '갑작스레' 올라온 K-POP 열기를 다뤘다. 이 소식은 유럽 현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조차 마치 갑자기 벌어진 기습공격처럼 여겨졌다. 어떠한 사전 활동이 수면 위에서 감지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것은 기습공격이었을까. 이미 예정된 결과는 아니었을까.

수면 위는 고요했으나 수면 밑은 뜨거웠다.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가 이미 전 세계로 열심히 한류를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위성방송, 케이블, IPTV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많은 플랫폼들은 알게 모르게 한류 콘텐츠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날라다 주었다. 구글코리아가 밝힌, 유튜브의 한국 3대 콘텐츠 파트너사인 SM, YG, JYP 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동영상 조회 수는 각각 3억5천7백만(SM), 3억4천8백만(YG), 1억7천1백만(JYP)에 이른다. 중요한 것이 조회수가 거의 대부분(90% 이상) 해외에서, 그것도 아시아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남미 등등 거의 전 세계에서 이뤄진 것이란 점이다. 즉 SNS는 가수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에 한류의 팬을 끌어 모은 셈이다.

K팝을 전 세계적인 콘텐츠로 만든 것이 SNS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결과들이 SNS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즉 이 디지털 실�크로드에는 우리에게만 열려 있는 길이 아니다. 전 세계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길. 그렇다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왜 다른 콘텐츠가 아닌 K팝인가. 왜 J팝(일본)이 아니고 C팝(중국)이 아닌 K팝인가. 이것은 디지털 실�크로드가 갖고 있는 대안적인 성향과 K팝이 가진 특징적인 위치가 만난 결과로 보인다. 서양음악 시장은 결국 영미차트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미국 시장, 빌보드 차트가 궁극적인 종착점

이다. 유럽에서 인기를 얻는 가수나 그룹은 영국을 거쳐 미국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의 코스다. 이것은 남미나 호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SNS가 발달하기 전에는 따라서 서양음악은 빌보드 차트로 대변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SNS가 가진 정보의 흐름은 디지털이 가진 대안적인 성향과 맞물려 빌보드 차트 바깥의 음악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여기서 대안적인 음악으로 주목되는 게 아시아권 음악이다. 음악적인 수준으로 볼 때, 아시아권 음악은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한참 일본시장을 뚫으려 노력했던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 음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해외시장에 대한 준비가 덜된 탓도 있지만, 당시는 일본의 J팝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자신감에 차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과 20년 만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유는 시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일본은 자국시장에 얽매어있었던 반면, 내수시장이 점점 좁아진(음원 시장이 열리며 더더욱) 우리는 계속해서 해외시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해외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차별화시킨 게 장르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댄스이고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퍼포먼스다. 한 사람처럼 척척 맞아 돌아가는 군무, 한번 들으면 좀체 잊혀지지 않는 후크 송의 매력, 유럽에서 작곡하고 일본에서 안무하며 한국에서 편곡하는 식의 글로벌한 제작방식, 트렌드세터로서의 아이돌이 보여주는 스타일 등등. K팝은 J팝이 갖지 못한 차별성으로 전 세계의 눈과 귀를 두드렸다.

바야흐로 디지털 실�크로드가 이미 열려버렸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실�크로드 위에 한류가 먼저 엮어진 것은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라 상당부분 준비된 예고된 일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빠른 디지털 문화 흡수력이 바탕이 되어있고, 그간 다양한 플랫

폼을 통해 꾸준히 한류 콘텐츠들이 해외로 나가서 조성된 정서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위에 엮어질 준비된 콘텐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서 콘텐츠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 한류가 열어놓은 디지털 실�크로드를 어떻게 확장하고 내실 있게 꾸며 갈 것인가는 이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그 전부터 오랜 기간 준비된 결과이지만 디지털 실�크로드가 열리는 지점에 K팝이 서 있었던 것은 정말 기막힌 행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행운을 지속가능한 흐름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부터의 노력에 달려있다.



글쓴이 소개

정 덕 현

- 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
- KBS 1라디오 '성공예감'의 고정 패널
- 문화비평 블로그 더키앙(the kian.net) 운영
- 저서 : 대한민국 남자들의 숨은 마흔 찾기

“역사가 없으면 나라도 없고 정신적 재산이 더 가치 있다”

서산 향토사의 실증인 이은우 선생



“역사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은우 선생(78)은 우리의 뿌리인 역사를 등한시 하는 요즘 세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된다고 한다. 역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고장에서 일어났던 과거 역사부터 현재까지 우리 삶을 조명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 미래의 좌표”라고 강조하며 “그런 의미에서 향토사 연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힌다. 평생을 우리지역 향토사 연구에 매달려온 이은우 선생을 자택에서 만났다.

◇ 공직생활을 오래 했는데 공직에 들어간 계기는 ...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농촌이 어려웠지요. 학교 졸업 후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결혼을 했고(19세때 결혼) 결혼 후 바로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서 고사포 대대에 배치되었는데 운 좋게 행정병으로 배치됐어요. 당시 고사포 부대는 장비가 복잡하고 최신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벌이 좋고 유능한 사병들이 많았죠. 덕분에 주변에 좋은 군대 친구들을 두었어요. 그중에 용인사는 친구가 제대하면 농사는 절대 짓지말고 미래에 전망있고 자금 회전이 빠른 장사나 기타 다른 일을 하라고 권유하였죠. 7월에 제대하여 가을 추수할 때까지 농사일을 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다 농사를 지으려니 더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사촌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양성소 시험이 있다고 해서 응시했는데 합격이 되어 1960년 1월 15일자로 원북면사무소로 발령을 받아 공직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후 읍사무소, 군청, 서산시청을 거쳐 1995년 2월 30일 천안시립도서관장을 끝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죠.

◇ 공직에 있으면서 바쁜 업무도 많을 텐데 어떻게 향토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행정직 말단 서기로 근무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불이익이 많았죠. 어떤 계장은 숙직통지서를 가져 가면 지옥놈(?)이 와서 이런걸 돌리느냐고 화내며 놀리고, 동료들도 나중에는 아예 ‘지옥놈’으로 부르더라고. 내가 서산농고, 서산중학교 등 동문이 없다보니 당하는 설움이라고 받아들였죠. 그러던 중 기반 행정업무를 맡은 관계로 동리를 많이 다닐 수 있었어요. 동리로 출장가면 이장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역에 특징 있는 이름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음암면 문양리에 갔는데 이장이 잠깐 ‘두름배’에 갔다 온다고 하는데 ‘두름배’가 왜 그렇게 불리는지 연유를 물어도 옛날부터 그렇게 불려져 와서 부르게 되었다고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 이런 것을 연구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 이전부터 아버지가 씨족이나 집성촌 등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 관심이 많았는데 잘되었다고 생각했죠. 1972년 새마을 계장을 하면서 산골 오지로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본격적인 지명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것이 지명에 얹힌 서산이야기의 시초이자 내가 향토사에 애착을 갖고 몰두하기 시작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향토사를 연구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꼽는다면?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가 없으면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죠. 반대로 영토는 없어도 역사가 있으면 민족의 정체성을 살려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터키의 크루드족이 본보기이고 후자는 이스라엘 같은 국가겠지요. 우리가 독도문제에는 흥분하면서도 지역의 문화재가 파괴되고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지역이 국가에 우선하듯,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향토사에 대한 애착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을 보람으로 느낍니다.

◇ 우리지역에서 유물이 많이 발굴되면서 박물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맨처음 박물관 건립 이야기는 우리지역 사학자들 입에서 나온게 아니라 외지 학자들이 서산이야말로 박물관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먼저 주장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듯이 서산에 박물관이 들어서면 서산의 얼굴이 될 겁니다. 선진 외국에 나가 보면 작은 마을에도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어 지역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서산 음암면 부장리 유물인 금관 같은 것은 엄청난 유물입니다. 인근 당진, 홍성, 예산에는 이런 유물이 없어요. 그리고 해미 기지리에서 출토된 흑요석으로 만든 구석기 유물도 가치가 큰 것입니다. 금관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주변에 큰 세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발굴과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보원사지 유물인 철불은 유럽, 미주 등에서 전시할 때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이런 귀중한 우리지역 유산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역의 자랑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야 하겠지요. 그것을 통해 후손들에게 긍지를 갖게하고 금전적 재산보다 무형의 재산이 더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산의 정신이 무엇이고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박물관 건립이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 ◇ 우리나라는 개발이라는 명제아래 경제발전의 소용돌이 속에 역사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역사를 연구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텐데 주민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요.

외람되지만 제가 시, 수필 등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문학은 적이 없잖아요. 향토사를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현재 현동자 안전도 제가 호산록을 뒤져 찾아내어 서산사람으로 빛을 보게 되었고 지역에 필요한 향토사를 바로 세우고 현창하는 일에 노력해왔는데 간혹 내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워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도 있듯이 서산의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같이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인물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 내포문화권 개발에 정부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포문화권의 정의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

서산, 당진, 홍성, 예산 등 모든지역에서 서로가 내포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포 문화권개발사업에 1조5천억이 투입되는데 서산에 있는 중요 유적 등이 많이 빠져있어 안타까워요. ‘내포’는 한글로 직역하면 안개, 즉 안바다지요. 이중환 선생은 내포지역을 가야산을 중심으로 서산, 당진, 태안, 예산 등 10개군으로 정의했어요. 가야산의 90%는 서산땅입니다. 서산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있는 안개의 전형적인 모습을하고 있어요. 안개에는 안개의 특징적인 문화가 있죠. 안개는 갯벌이 있고 그로인한 풍부한 어족자원이 있어 생활터전이 안정되었고 언어가 느리다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가 내포지역을 특징짓는 중심역할을 하려면 정체성을 갖고 민, 관, 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점이 부족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은우 선생은 지금까지 지역사회 향토사학자로 정체성 확립에 노력 했듯이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향토사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을 것이다. 올 9월에는 조치원에서 주류성에 대한 발표회를 가질계획이다.

“주류성의 왕도가 보원사지로 볼수 있어요. 용현리 마애불은 사신이 오가다가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성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력은 보원사 중심의 승려였을 것이고 이들이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지역세력이 따랐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발표와 함께 “보원사지 5층석탑이 국보로 지정되어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힌다.

지금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책을 많이 읽고 자료를 뒤적이며 향토사를 연구하고 지역 발전을 생각하는 선생의 모습에서 역사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글 : 유 병 인〉

월전 장우성



월전 장우성은 한일합방 2년 후인 1912년 5월 충주에서 태어나 두 살 되던 해 여주로 이사해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세 때 서울로 와서 그림공부를 하여 우리 현대 한국화의 중추적 역할을 한 화가로 2005년 94세로 타계할 때까지 열정적으로 삶을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화가이다

그는 일제시대와 신문화의 격동기를 몸으로 부딪쳤으며 6.25 전쟁과 정치의 변화와 시대의 아픔도 직접 격어 내야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5살 때부터 할아버지께 천자문을 배웠고, 그 후 삼촌들과 함께 글방에서 사서삼경을 모두 배울 수 있었다. 부친이 한학자였고 엄격한 유교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학식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다 그는 그림을 배우기 이전에 유년기부터 가정학습으로 시와 서예를 배웠고

그것이 훗날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아가며 엄한 한문교육을 받았는데 이때 천자문, 소학, 명심보감 등을 두루 익혔다. 그날 배운 것은 그날 저녁에 책을 덮어놓고 줄줄 외웠다고 한다. 그 결과 매년 칠월 칠석에 열리는 시회(詩會)에서 장원을 한 적도 있었다. 훗날 시작(時作)과 고전한시 해석의 탁월함, 그림과 함께 시를 짓는 자유자재한 구사는 이러한 유년기와 학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글공부 외에 그림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네 집에서 좋은 그림을 보여 준다고 하여 가서 섬세한 인물화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초상화 작가는 이조 말엽에 이름을 날린 석지 채용신이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앞길에 대해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 집안 어른들은 그를 문장명필로 만들어 입신양명을 시키려는데 그는 화가를 꿈꾸고 있었다. 그는 그가 갈 길은 예술이라고 굳게 다짐했다고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다.

19세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그림 공부를 위해 서울로 올라온 월전 장우성은 이당 김은호의 화숙(畵塾)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울로 올라갈 때 아버지는 달을 좋아하는 천성과 그가 자란 마을 이름인 사전(絲田, 마을이름)에서 한자씩 따 월전(月田)이란 호를 지어주시며 이다음에 훌륭한 화가가 되면 쓰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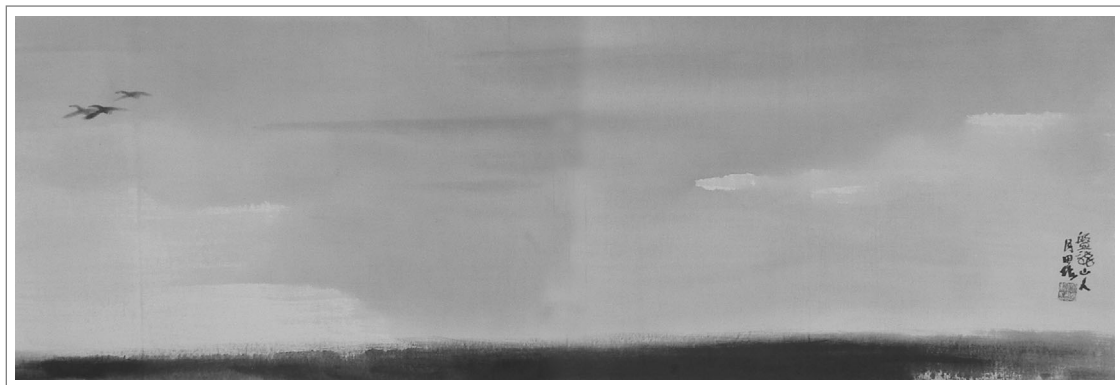
당시 동경 유학을 통해 그림을 배운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그는 김은호 문하에서 일본풍의 공필진채의 화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일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용준과 함께 한국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고, 그 결과 전통적인 문인화풍에 서구적인 기법을 가미한 '신문인화풍'을 창작하기에 이른다. 신문인화풍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청대 오창석의 문인화가를 추앙하게 되는데 그의 화풍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해 그는 "특히 중국의 오창석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오창석의 그림은 아주 전통적인 동양화의 화풍을 존중하면서도 거기에 현대적인 감각과 수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전통적인 동양화와는 거리가 먼 일본화풍에 의존했던 화단이 해방이 되면서 갑자기 현대적인 것이라 하여 전통적인 것을 찾기 전에 서양적인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실정을 보고서, 전통을 잘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것을 잘 소화해가면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평소 장우성의 주장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우성은 오창석의 예술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적 정취가 느껴지는 고유한 신문인화풍을 창조하고 만년의 글씨에서는 오창석풍이 아닌 부드러운 듯 하면서 골기가 있는 월전풍을 창조함으로써 자신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새로운 예술 정신을 보여주었다.



"나팔꽃" 32X 42cm 1979년

장우성이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할 때 주력했던 것은 인물화였다. 그의 스승 김은호는 면면히 내려오던 전통화법을 벗어나 근대적인 면모를 새롭게 보여주던 일본회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제자들에게 지도하였다. 김은호의 지도를 받으면서 장우성이 놀라운 속도로 체득한 것은 바로 사실주의적 묘사와 부드러운 색감으로 표출하는 장식성 넘치는 인물묘사였다. 근대적 인물화의 새로운 제작 방식이 확연히 드러나고 섬세한 필선과 부드러운 색조로 차별한 분위기를 한껏 풍긴다.

1980년대 이후로 장우성의 인물화는 간결한 필선과 함축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단조로운 선과 장식적인 색채를 탈피하여 수묵화 본연의 서예적 필선과 담백한 묵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때로는 예술과 풍류를 즐기는 일종의 자화상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우성에게 화가로서의 명성을 처음 가져다주었던 것이 인물화였음을 떠올린다면 만년의 관심은 다른 소재로 옮겨 갔음을 알 수 있다. 장우성이 치중했던 것은 화조, 영모, 초충, 사군자 등이다. 1950년대부터 점차 중국 근대화단의 대가 오창석(1844-1927)의 화풍을 참조하면서 장우성은 다양한 공간감과 여백을 실험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학이나 까마귀는 물론이고 물고기나 작은 풀벌레까지도 마치 만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의인화시켰다. 그 결과 고뇌하는 학, 소리치는 까마귀, 춤추는 유인원, 성난 개구리 등이 등장한다. 그렇게 그의 화조화는 의인화가 두드러지고 종종 세태풍자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면에서 청대의 유민화가였던 팔대산인(八大山人)을 떠올리게 한다. 장우성은 사군자뿐만 아니라 등나무, 복숭아나무, 수선화 등을 비롯하여 이전에는 잘 그리지 않던 장미도 즐겨 그렸다. 그만큼 전통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날저무는 평원" 124X248cm 1993년

수 있는 동식물을 적극적으로 자기 그림의 소재로 삼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 문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의 그림에서 1993년에 제작된 "날저무는 평원(平原)"은 천수만의 신비롭고 조용한 석양을 담박(淡泊)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보인다. 아래보이는 지평선은 넓은 붓으로 여러번 칠하여 부드럽고 포근함이 느껴지도록 처리했고 세세한 풀과 갈대의 묘사는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멀고 광활한 석양하늘은 전체화면을 뒤덮고 있으며 멀리 구름인 듯, 안개인 듯 색감의 변화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게 은은하게 펼쳐져 있다. 그것이 전부인가 싶은 그런 이분법적 그림화면 왼쪽 끝에 정지 된 듯 날개를 펴고 내려앉으려는 세 마리의 오리가 눈에 들어온다. 재빨리 무대 속에서 사라져 버리려고 도망치듯 달아나다 포착된 세 마리의 오리는 이 작품 속에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 한다. 그렇다 작가는 우리가 생각하듯 천수만하면 떠오르는 가창오리떼의 화려한 군무로 이 넓은 평원을 이 높은 하늘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때로 화려하고 격정적으로 느껴지는 서해의 낙조를 담박하게 투사하여 정적으로 보다 완벽한 공간미를 표현하였다고 본다. 월전 장우성은 "원래 동양화는 사실주의가 아니고 표현주의와 인격과 교양의 기초위에 초현실적 주관의 세계를 전개하는 것이 동양화의 정신이다. 그리고 함축과 여운과 상징과 유현, 이것이 동양화의 미다"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월전 장우성(예서원), 화단풍상70년(미술문화), 장우성 · 박노수 사제동행(월전미술관)



글쓴이 소개

조 행 섭

-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 강사
- 한국화 화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서산시문화관광해설사 정 명 재

도로사정이 좋지 않던 옛날에도 개심사에 가는 길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개심사 경내를 알리는 일주문에 이르기 전 마을을 물레방아골이라 불렀는데 이곳에 곡식을 찧던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또 골이 깊다하여 깊은 골이라고도 했다. 물레방아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골짜기에는 항상 물이 마르지 않았고 인적이 끊이지 않고 왕래가 빈번했으며 골이 깊어 산수가 수려했던 곳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경관이 아름다워 마음이 머물고 쉬을 얻을 만한 곳이었다. 이 곳을 지나 일주문에 들어서면 찾아오는 이를 먼저 맞아 주는 곳이 세심동(洗心洞)이다. 그 이름이 개심사(開心寺)와 어울려져 깨끗한 몸가짐으로 마음을 열게 한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할머니들이 사월 초파일이면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쌀 한 되 정갈하게 쏘여 깨끗한 보자기에 싸들고 동네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이 길을 따라 나들이 겸 개심사를 찾았다. 정성을 다하여 불공을 잘 드리면 자손이 번창 하고 할머니의 저승길이 밝다고 하셨다.



개심사 입구 소나무

우리조상들은 천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의지하며 살아 온 개심사를 감싸주는 산을 절산이라 하여 나무 한 그루, 돌 하나까지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아 소나무가 울창하였고 큰 소나무를 왕소나무라고 사람들은 예의를 갖춰 불러주었다.

그러나 이 왕소나무마다 밑등결에 상처가 있었고 붉이 되어 성장이 시작되면 상처에서 송진이 흘러나왔다.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의 전쟁물자조달을 위해 송진(松津)공출 강요로 생긴 상처였다.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갖은 방법으로 수탈해가고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끌어다 힘들고 위험한일을 시켰다. 꿈에 설레던 소녀들을 정신대로 끌어갔으며 우리의 금수강산마저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일본이 전쟁에서 부족한 물자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거두어들였던 공출품목은 주로 미곡이었지만 자꾸 그 품목이 늘어 잡곡 면화, 송진 등 총 40여종에 달했다. 이렇게 강제로 공출 하게한 송진은 목탄차의 연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에 크고 수세가 왕성한 소나무는 공출용 송진 채취로 거의 고사했고 송진채취의 화를 면한 그 후손들이 오늘의 개심사 절산을 지킨다. 하지만 오늘날도 개심사를 찾는 관광객 중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해미읍성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 태종, 세종 때에 축성되어 종2품 병마절도사가 서해안을 지켰고 효종임금님 때부터는 겸영장이 내포 13개 군현의 지방군을 훈련하고 지휘하며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여 조선시대 500여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었다.

동헌 뒷동산 의 소나무를 자세히 보면 아직도 송진채취의 상처를 안고 서있는 소나무들이 있다. 해미읍성의 관아건물을 헐값으로 매각하였고 동헌과 객사만 남겨 면사무소와 학교로 사용하게 했으며 읍성내에 일본의 신사(神社)를 짓고 토지까지 매각하여 민가가 들어서게 했다.

13개 군현의 구심점이 되었던 해미읍성을 파괴했고 병영의 지형지물로 이용 되던 동헌 뒤 산의 소나무마저 송진채취를 시킨 것은 우리의 정신력을 파괴하기위한 계획된 소행으로 생각된다.

산에서 소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자를 치도곤으로 엄히 다스리며 치산을 지방수령의 덕목으로 삼아 가곤 소나무를 일본전쟁물자로 쓸 송진채취로 황폐시켰다. 또 일본은 해미면 산수리에 광산을 개발 많은 양의 금을 채굴해 갔다고 전해온다. 금 광산 개발로 재미를 본 일본은 산수리에 변전소를 짓고 전기를 끌어드려 광산개발을 더욱 확대하여 지금도 산수리에는 여기 저기 광산의 흔적이 남아있다.

운산면 태봉리에 있던 조선 13대 명종대왕태실은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서삼릉으로 이봉(移封)되고 태실이 파괴되었던 것을 1975년에 외형만 복원되었다.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자명한 사실을 왜곡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기나라의 영토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이 얼마나 무섭고 경악할 일인가.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언젠가는 우리나라와 분쟁과 충돌을 야기 할 수밖에 없는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일본 강점기의 역사는 세대가 지날수록 자취가 없어지고 흔적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간다. 아직 남아 있는 증거들을 찾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알려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역사 앞에서 정직할 때 우리가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도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손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 우리나라를 맡길 때 일본과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세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유기하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그 죄 값은 우리의 후손의 몫이 될 것이다.

개심사 입구에 들어서면 아직도 송진채취의 상처를 안고 버텨온 소나무가 있다.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 동료소나무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라도 하는 것만 같다.

아라메길이 이제는 서산시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늦었지만 이 기회에 아직도 일본침략의 흔적이 남아있는 명종대왕태실, 운산면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상왕산 만세봉, 개심사 절산, 해미읍성, 산수리 폐금광굴을 연결하는 답사길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심신을 달련하며 일본을 이해하는 국민정신교육 코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봄직하다. 우리국민이 역사를 바로알고 용서하는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역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를 주신 분 : 송학구(운산면 신창리), 김동호(운산면 신창리), 채두석(해미면 산수리)



해미읍성내 소나무



아이들의 생태 천국

나비아이

이 현 용 (나비아이 생태학교 교사)

어릴 적 주변을 둘러보면 날아다니는 나비와 나뭇가지 끝에 빈자리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나비와 잠자리 같은 곤충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밤 더위를 달래며 가족들과 평상에 앉아 감자나 옥수수를 먹을 때에도 영롱한 형광 불빛을 내 뿜으며 날아다니던 반딧불이를 보고 즐거워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곤충들을 정서곤충이라고 하는데요, 정서 곤충은 우리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해 준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이러한 자연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록 접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 눈에 비치는 자연은 어른들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어떠한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나비를 따라 자연으로 나간 아이들은 시인이 되고, 생태학자가 되고 나비도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연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산에 나무를 심어요.”라고 아이들은 이야기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형화된 방법으로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자연보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 합니다. 최근 생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재가

정말 많이 사는 계곡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굴삭기가 바닥을 파내고, 멋진 조경석으로 하천의 제방을 쌓고, 멋진 파고라와 벤치, 그리고 아주 멋스러운 수십년 된 소나무까지 정말 멋지게 단장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천에 가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가재는 냉서류로 1급수의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차가운 1급수가 있으

려면 계속해서 용천수가 있어야 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늘을 만들어줄 커다란 나무들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겠지요. 하지만 중요

한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가재는 옆새우

라는 민물새우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럼

옆새우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옆새우는 활엽

교목의 잎사귀가 만들어 주는 유기물을 먹고 자라

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아주 오랜 시간 다시 자연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때까지 가재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일 바로 자연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땀 흘리고 더위를 참지 못하는 아이들과 옷이 흠뻑 젖을 때까지 채집을 하고, 채집한 곤충을 분류하고 이름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숲속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인간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아이들은 합리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감성을 일깨우고, 호기심을 채우고, 주변과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는 곳, 이러한 아이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는 나비아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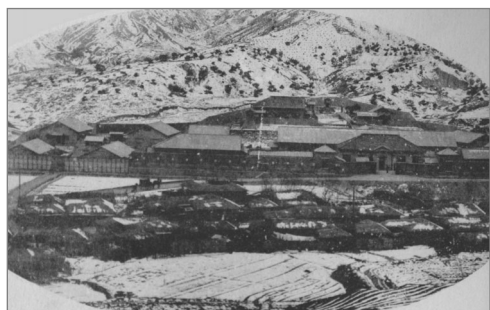
나비아이는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처음 조성을 시작하여 2011년 현재 11,600㎡의 부지에 60여종의 나비가 자연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자로 20여종의 나비를 대량 사육하여 다시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많은 나비가 날아다니는 나비생태공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비가 성충으로 10일 정도의 짧은 생을 살아가기에 계속해서 나비를 보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사육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330㎡의 나비 생태관과 표본 전시관, 곤충 채집로 등에서 다양한 나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생태교육을 위해서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나비아이는 반드시 사전예약에 의해서만 방문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소정의 교육비가 있습니다.(당일, 당일 채집, 종일, 1박2일 프로그램 등)

• 홈페이지 : <http://www.nabii.com> / 전 화 : 041) 664-5949



독립과 민주의 현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사 김 태 동



경성감옥 전경 1908년



정문담장과 망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 정일택)에서 운영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908년 일제의 한반도 침략에 맞서 싸운 의병들을 수감하기 위해 서대문구 현저동 자락에 최초의 근대식 감옥인 경성감옥으로 개소되었다. 일제의 강제병합이후인 1912년에는 마포구 공덕동에 신규감옥을 건축하면서 서대문 감옥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1923년부터 서대문 형무소라는 명칭으로 1945년 해방 때까지 우리나라의 항일독립의지를 꺾고자 사용되었다.

해방이후에는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1987년까지 독재정권에 항거한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형(行刑)시설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한국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으로 선열들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불굴의 정신을 배우고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인류공영과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움의 장소인 것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오면 제일 먼저 붉은 담장 그리고 감시와 통제 시설인 망루를 만나게 된다. 약 4m 높이의 붉은 담장과 10m 높이의 망루 그리고 굳게 닫힌 정문은 당시 우리국민에게 억압과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정문을 지나면 형무소내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건물인 보안과청사가 보인다. 현재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2008년 종합보수정비공사를 통하여 일제강점기 모습으로 복원되었으며 형무소역사실, 민족저항실, 지하고문실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형무소역사실에서는 1908~1987년까지 서대문형무소의 변천과정과 전국 형무소 설치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민족저항실은 의병전쟁부터 해방까지 독립운동의 과정을 전시하였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전시

물로는 종합보수정비공사 당시 발견된 용수 원형과 약 5,000여 독립운동가들의 수형기록표를 벽면에 전시한 추모공간으로 민족의 혼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지하고문실에서는 일제의 고문 방법과 순국선열들의 육성증언을 통해 일제의 통치 방식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보안과청사를 지나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사에 들어가면 근대식 감옥의 구조인 판옵티콘(panopticon)과 옥중생활을 볼 수 있다. 판옵티콘은 소수의 인원만으로 다수의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제러미벤담(Jeremy Bentham, 1748 ~ 1832)에 의해 고안된 감옥구조로 간수가 서 있는 중앙사를 중심으로 옥사를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하여 한 곳에서 모든 곳을 통제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옥중생활은 백범일지, 옥중일기, 편지 등을 비롯한 각종 기록과 수인복, 밥찌는 틀, 식기 등의 전시물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당시 감옥내 열악한 의식주를 엿 볼 수 있다.

옥사에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인 독방(2.4㎡, 0.7평)과 일반감방을 볼 수 있다. 독방은 24시간 내내 빛이 한줄도 들어오지 않아 마치 먹물처럼 캄캄하다 하여 일명 먹방이라 불렸다. 일반감방에서는 독립운동가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벽을 두드렸던 ‘타벽통보법’ 볼 수 있다.

옥사 뒤에 있는 공작사는 형무소내 재소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각종물품을 생산하였던 공간이다. 현재는 노역에 관련된 영상과 노역의 종류, 일일노역시간 및 관련유물인 노역전표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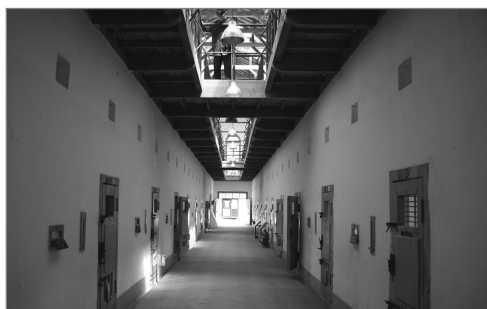
공작사를 나와 사형장을 가는 길에는 독립운동을 펼치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추모비가 서 있다. 서대문형무소역관에서는 2008년 순국선열들을 재조사하여 추가 발굴함으로써 2008년 80여 명에서 2010년 165명을 확인하여 등재하였고, 앞으로도 발굴되면 추가로 등재할 예정이다.

사형장은 1923년 지어진 일본식 목조건물로 5m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격리되어 있다. 사형 장치는 교수형 집행을 위한 개폐식 마루판과 교수줄, 가림판 뒤쪽에는 마루판을 밑으로 내리는 레버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루판 아래 지하 공간에는 시신수습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수많은 독립·민주화운동가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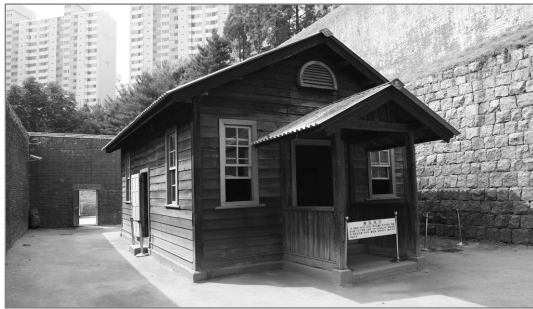
마지막 관람코스인 유관순지하감옥은 1916년 지어진 여성옥사로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하기 위하여 만든 건물이다.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1층의 건물이었으나 1934년경 철거, 매립되었다. 특히, 이 지하독방은 유관순열사가 일제에 항거하다 모진 고문으로 순국하신 현장으로 일명 ‘유관순굴’



민족저항실



서대문형무소 12옥사 내부



사형장



나만의 역사신문 만들기

이라고 부른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시민고객들을 위한 역사·문화행사 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내 마음에 심은 태극기’, ‘서대문형무소 속의 독립·민주화운동사 읽기’ 등을 실시하였고 여름방학 특집 프로그램으로 ‘역사신문 만들기’, ‘나도 독립운동가 - 재판 판결문 만들기’, ‘서대문형무소 한지망루필통 만들기’ 등 서대문형무소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독립운동사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 실시한 유물 기증운동을 통해 각종 자료 수집 등의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고객만족경영에도 힘을 기울였다.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감동 실천의지를 확산시켰으며, 사적 324호로 지정된 문화재의 특성상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이동식 전동차를 구비하고 장애인 전담 도우미를 지정하여 장애인 편의에 최선을 다하였다. 3·1절과 광복절에는 고객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우리의 아픈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2011년 미국 CNN 방송이 뽑은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선정된 50가지 이유 중 국내 박물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9위에 올랐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선열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시민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11년에도 더욱 사랑받는 역사의 현장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뜻 깊은 시간 갖으시기를 권유해본다.



-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 주차안내 : 독립공원 주차장 (전화 : 02-312-2958)
- 관람시간 : 3월 ~ 10월 : 09:30~18:00 / 11월 ~ 2월 : 09:30~17:00
-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 다음날 휴관)
- 대표전화 : 02-360-8590~1 ■ 홈페이지 : www.sscmc.or.kr

■ 찾아가는 다도교실

차도(茶道)의 향남(香)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원장: 김진우)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다도 교실’이 열린 것이다. 서산문화원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문화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교육 내용은 차의 정신과 생활예절, 차도구 사용법과 차음식 만드는 법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다도교육은 한국 차문화 협회 서산지회 최보승 회장께서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시며 수고해 주셨다. 또한 서산문화원의 이용배 간사께서도 원활한 다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스태프 역할을 성실하게 잘 해 주셨다.

나는 사실 차를 즐겨 마시지 않는다. 차 보다는 커피를 주로 마시는데 그 커피조차도 제대로 음미하며 마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다지 세상에 드러낼만한 일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도 바쁘지 한가하게 사색할 시간이 없다. 그러다보니 자판기의 커피나 날개로 포장된 커피 믹스를 종이컵에 담고, 온수기의 물을 부어서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품격 높은 교양인의 상징인 ‘다회’에 초대받을 일도 없어서, 차를 마시는 풍경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접한 것이 ‘차문화’에 대한 내 상식의 전부였다.

그런데 서산문화원장의 배려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함께 다도 분야의 이 지역 최고 전문가이신 최보승 회장께 직접 다도교육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번 다도교육을 계기로 그동안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었던 차(茶)와 차도(茶道)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가 어느 순간 ‘차(茶) 애호가’가 된 것이다. 거기에는 웃맵시, 말맵시, 손맵시, 눈맵시 등 온 몸으로 정성스럽게 ‘차도(茶道)’를 전해주셨던 최보승 회장의 역할이 크게 일조를 했다.

최 회장은 매번 단정하고 고운 빛깔의 한복을 차려 입고, 잘 빗어 올린 쪽머리에 온화한 눈빛, 젖은 옥구슬이 구르는 듯한 촉촉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강의를 마칠 때까지 정성스럽게 차와 다기들을 다루며 ‘차도’를 가르쳐 주셨다.



또한 이 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 내에서도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큰절, 반절 등 명절이나 애경사 때 꼭 해야만 되는 인사 예절에 대해서도 몸소 시범을 보이며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다. 거기에다가 다과나 떡, 과일 등 음식 먹는 예절과 차음식을 만드는 방법까지 차도와 관련된 예절을 꼼꼼하게 지도해 주셨다.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최 회장의 ‘차도’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 최 회장은 진정 ‘차인(茶人)’이며, ‘차도(茶道)’가 온 몸에 스민 서산지역의 보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최 회장의 진지함에 매료되어 자신들의 문화와 너무도 상이해서 낯설었을 텐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표정으로 힘든 동작들을 잘 따라했다. 그녀들은 한 장면이라도 더 카메라에 담아서 간직하거나 익히기 위해 수시로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의 키를 눌렀다. 이들도 어느새 몸으로 마음으로 ‘차도’를 익힌 ‘차인’이 되어 있었다.

차도 수업이 점점 무르익으면서 모든 참여자들은 지위의 고하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출신국의 같고 다를까를 떠나서, 모두가 ‘차도’를 통해 이미 하나의 아름다운 ‘상상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곧 ‘차(茶)’의 정신, ‘차도(茶道)’의 완성일 것이다.

차나무는 동백꽃과의 상록수로서 아무 곳에서나 자라지 않으며, 꽃이 먼저 핀 후 많은 종자를 맺는다. 차나무는 이식도 어렵고 잎의 향은 은은하고 신비로우며 인체에 이로운 오미(五味)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차의 특성을 인간의 성정에 비유한다면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것, 변절하지 않는 것, 지조가 굳은 것, 변영하는 것,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등이다. 또한 차의 오미, 즉 쓰고, 달고, 시고, 떼고, 짠 오미의 차를 애음한다는 것은 중정(中正)의 인생사로서 괴로워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달다고 마시고 쓰다고 버리지 않는 품격 높은 행위이다. 그래서 선대의 학자와 교양인들은 차의 이러한 ‘천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직접 차 나무를 키우고, 차를 만들고 달여서 지인에게 대접하거나 애음하였다. ‘차인’은 존경과 겸손, 배려와 섬김의 지혜를 색으로, 맛으로,

향으로 가르치는 ‘차’를 대할 때, 모든 예의범절을 갖추고 차향이 주는 자연의 법칙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차나무를 키우고 차잎을 따고 차를 만들고 차를 달이고 차를 내오고 차를 서로 마시고 차자리를 거두는 과정 속에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순간 순간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 차는 좋은 음식의 역할과 약으로서의 효능까지 함께 지녔다하여 식약동원(食藥同源)이라 했다. 음식과 차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의 기원이다. 음식은 인간의 정신과 성격을 형성하며 음식 먹는 법은 예절을 만드는 기본이다. 또한 정신은 곧 예절을 통해서 사회화 되는데 음식 만드는 법은 특히 식물이 지닌 자연성을 인간의 몸 안으로 받아 들여 자연의 한 유기체로 돌아가게 하는 지혜라고 한다. 음식은 각각 그 성질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먹어야 온전하게 자연의 섭리를 내 몸 안에 들일 수가 있다. 음식이 지닌 독을 풀거나 음식을 통해서 몸속에 생긴 병을 치유하는 약으로 쓰인 것이 차의 시작이었다. 차는 인간의 정신생활에 특별한 효능을 발휘한다. ‘차도’를 갖추어서 차를 내 몸 안에 들이게 되면 정신을 맑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 주며, 혈액 생성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이 온몸과 마음으로 일체가 되어 자연의 섭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예의를 갖추는 때, 이 예가 곧 ‘차도’가 되는 것이다. 차도는 단순히 차를 향한 ‘예’가 아니라 차로 대표되는 자연과 세상만물을 향한 ‘관계의 예’인 것이다.

옛 선인들이 강조하기를 모든 ‘예의 범절’은 밥상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밥상 예절, 음식을 대하는 예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하듯 예의 없이 음식을 대하는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는 음식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처럼 타인에게도 예를 갖추지 않고 도리를 다 못한 적이 많은 것 같다.

이번에 서산문화원에서 마련해 준 ‘다도 교실’을 통해서 나와 우리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단순히 차를 대하는 예절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예절, 타인에 대한 예절, 세상 만물을 대하는 숭고한 예절을 배우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서산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글쓴이 소개

정 영 신

- 문학박사
- 한서대학교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
- 시인, 소설가, 문화비평가

문

화

원

수

직

■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1. 8. 22 ~ 26
- 접수방법 : 방문접수(오전 9시부터 정원내 선착순)
- 강의기간 : 2011. 9. 5 ~ 11. 25
- 프로그램 : 키즈발레외 34과목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eosan.cult21.or.kr/>) 참조

■ 오청취당 문화답사

서산의 조선시대 여성시인 오청취당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그녀의 시와 삶을 느낄 수 있는 문화답사를 실시합니다.

- 일 시 : 2011. 9. 1(목) 10:00
 - 답사장소 : 오청취당 묘소, 정순왕후 생가, 김기현 가옥,
음암면 유계리 일대
 - 해 설 : 문 희 순(배재대 교수)
 - 답 사 비 : 무 료
- ※ 행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와 음악으로 만나는 오청취당 숲속 콘서트 - 꿈

오청취당의 시와 임동창의 음악이 만나는 숲속의 달빛 콘서트!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일 시 : 2011. 9. 16(금) 오후 8시
- 장 소 : 정순왕후 생가 앞 청취당 숲
- 연 주 : 임 동 창(피아니스트)
- 노 래 : 송 도 영
- 해 설 : 문 희 순



瑞
山
文
化
院



시 | 정 | 소 | 식

Ⅰ 한방남성건강교실안내 Ⅰ

장년기 남성의 전립선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방남성건강교실』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1. 8. 23부터~10. 18까지 주1회 운영(화)
- 교육시간 : 오전 09:00~10:30
- 교육장소 : 서산시보건소 2층 다목적실
- 대 상 자 : 전립선 질환에 관심 있는 40세 이상 남성 25명(선착순)
- 교육내용 : - 한의학적 전립선 질환관리
- 전립선 질환 개선을 위한 기신법과 전립선 기체조
- 전립선 혈액검사 후 2.0이상 한방진료
- 인원 및 교육비 : 희망자 25명, 무료
- 신청기간 : 2011년 7월 18일 ~ 8월 12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접수
☎ 661-6568, 661-6545 보건소 한방건강증진실



서산시보건소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이웅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예천동) 10,000원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 조규선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한기홍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김시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 • 윤옥권 (서산시 읍내동) 20,000원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김옥선 (서산시 지곡면) 100,000원 |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 • 이종칠 (서산시 양대동) 2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이웅조 (충북 청주시 상당구) 20,000원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